

곡성군 주민 체감 '교통·의료·경제' 성과 빛났다

효도택시 확대·소아과 진료 재개
지역경제·청년·농업·관광 등 성장
장미산업 고도화 등 5대 비전 속도

곡성군이 민선 8기 출범 1년 만에 교통·의료·경제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5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주민 중심' 기조 아래 생활 안전 해결에 집중한 결과 효도택시 운행 조건 완화와 은행 지역 확대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6년 만에 소아과 상시 진료를 재개해 지역 아동 66%가 이용하는 등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 심정사품권 발행액을 200억원으로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해주세요' 캠페인은 2억5천만원의 기부금이 모여 의료시설 확충과 전문의 확보로 이어졌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 우



조성래 곡성군수가 지역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손을 맞잡고 있다.

〈곡성군 제공〉

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정주 여건도 개선됐다. 곡성읍 공공임대주택 120세대 입주를 완료했고, 청년 하우징타운과 전

남형 민원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워크빌리지 in 곡성'을 통해 청년 200여명이 위케이션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정주 문화도 확산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온실 준공과 함께 청년 6명이 입주해 첨단농업 기반을 다졌다. 블루베리 매출은 72억원, 멜론 출하량은 2021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했다.

곡성세계장미축제에는 25만명이 방문, 186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세계적 관광 콘텐츠 확충과 문화기획자 양성 등으로 문화·관광 산업의 체질도 개선됐다.

복지·안전망 강화에도 속도를 냈다. 전 군민 버스 무료화 추진, 효도택시 확대,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였다. 출산율은 2021년 0.54명에서 2024년 1.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고, 출생아수도 41명에서 87명으로 늘었다.

곡성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장미산업 고도화 ▲관광 대전환 ▲AI 스마트농축산업 육성 ▲생활인구 500만 시대 달성 ▲신재생에너지 자립 모델 구축 등 5대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계획이다.

조성래 군수는 "지난 1년은 군민의 삶 속에서 변화의 씨앗을 함께 심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보성서 차나무 분재·우수분재대전 개최

24~26일 열선루공원 일원서

이순신 역사문화축제와 연계

'제3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과 '2025 전남 우수분재대전'이 보성에서 동시에 열린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24~26일 열선루공원 일원에서 '제3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과 '2025 전남도 우수분재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성차나무분재협회가 주관하고 보성군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 한국남도분재협회가 주관하고 전남도가 후원하는 '전남도 우수분재대전'이 함께 열리는 전국 규모의 분재 축제다.

올해는 '2025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와 연계해 역사와 자연,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 융합형 행사로 꾸며진다.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은 2023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호평을 받고 있으며, 하안 차꽃이 피어나는 10월, 차나무의 생명력과 예술미를 함께 조명하는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3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과 '2025 전남 우수분재대전'이 보성에서 동시에 열린다. 사진은 '제2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 금상 작품. 〈보성군 제공〉

전시장은 열선루 주변과 광장 일대에 마련되며, 차나무 분재 70여점과 송백류·잡목류 등 60여 점의 우수 작품이 전시된다.

임봉현 보성차나무분재협회장은 "역사적인

장소인 열선루에서 차나무 분재대전과 전남 우수분재대전을 함께 열게 돼 '녹차수도 보성'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고흥군, 60세 이상 요실금 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 치료비 부담 완화

고흥군은 15일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요실금으로 진단받고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60

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기관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고 치료비를 지출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다.

지원 항목은 요실금 관련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이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실제 본인 부담 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1회 시술 또는 수술 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실손보험이나 타 기관으

로부터 동일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요실금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담양군의회, 제340회 임시회 개최



21일까지 조례안 등 12건 심의

건설사업 실태조사·행감 등 준비

담양군의회는 15일 "전날 제340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임시회에서는 15~21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2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 1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에는 '주요 건설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건'이 포함돼 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관훈 의원)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이기범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영 의원)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대현 의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박준엽 의원) 등 5건이 상정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주요 건설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주요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안전 관리 실태, 주민 생활 편의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주요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면밀히 준비하는 뜻깊은 회기"라며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정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규 기자

"단돈 500원으로 즐기세요" 구례군 오맥축제 개최

18일 오후 5-8시 5일시장

버스킹·플리마켓 등 '풍성'

구례군은 15일 "오는 18일 오후 5-8시 구례읍 5일시장 상설무대 일원에서 '제10회 오맥축제 오라! 구례, 구례에서 즐기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오늘 쓰는 소비쿠폰, 내일 웃는 지역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상인회와 청년점포, 주민협의체가 함께 참여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가을밤의 상생축제로 운영된다.

행사는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노고단 앙상블의 색소폰 연주를 비롯해 초청가수 고도영, 서진, 별하, 여신 등의 공연, 문화싸롱의 대

중 가요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500원에 500cc 생맥주 1잔을 제공하며, 1인당 최대 4잔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환권(쿠폰) 제도를 운영해 건전하고 안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청년점포와 주민점포가 참여해 튀김, 부추전, 닭강정, 떡볶이, 치킨 등 다양한 먹거리와 수제빵, 공예품 등의 특색 있는 상품을 함께 판매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가을밤 구례 5일시장에서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고, 음악과 웃음이 함께 흐르는 오맥축제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따뜻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순천시 요정 버전 '루미 똥이' 이모티콘 출시

순천시청 카카오톡 채널 추가

순천시는 15일 "이날 오후 2시부터 순천시청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친구 대상으로 시 캐릭터 '루미 똥이' 이모티콘을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에 출시되는 '루미 똥이' 이모티콘은 국내 대표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협력해 시 캐릭터 루미, 똥이를 트렌드에 맞게 고도화를 거친 요정 버전을 활용했으며, 순천에 기반한 인스타툰 작가 '달고나'와 협업해 제작한 움직임이 이모티콘 16종으로 구성됐다.

'루미 똥이'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순천시청'을 검색한 뒤 채널을 추가하면 선착순 5만 명까지 받을 수 있으며 30일간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순천시청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시정 소식, 문화예술 행사, 이벤트 정보 등 유용한 순천 소식들을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제공받



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루미 똥이' 요정버전 캐릭터가 많은 이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캐릭터로 즐겁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SNS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순천=정기자

장흥군 하수도 국비 보조사업 66억 확보

총사업비 110억원 투입

패류생산지역 시설 보급

장흥군은 15일 "환경부가 주관한 '2026년 하수도 분야 국비 보조 신규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66억원을 포함한 총 1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산읍 고마리와 하발1구 등 4개 마을 23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기존 공공하수처리장과 연결되는 하수관로를 설치해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내용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장흥=노홍록 기자

장흥군은 지난해 1월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외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패류 및 수산물 위생 향상을 위한 하수도 보급의 시급성을 적극 건의한 결과 이번 선정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대폭 높이고, 악취 및 위생 문제를 해소해 패류생산지역의 위생관리 수준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신규사업 확보와 기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하수도 보급률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